

나눔·연대 광주정신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복지 8359억원 투입

장애인복지타운 설립·교복비 지원

광주시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집체 심화로 저소득층 약자와 소수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광주시는 올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52개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해 총 8359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7만명, 노인 11만5600명, 장애인 3만7000명, 다문화가정 5540명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가정의 위기

를 해소에 적극 나선다. 또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돌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경로당 지원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욕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들 사업 외에도 광주시는 올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중·고등학교 신입생 35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출산장려금도 남편이 장애인일 경우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은 100만원, 그 외 3급은 50만원을 지원한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옛 인화학교 부지를 장애인 직업재활과 수련시설 등을

위한 ‘장애인인권복지타운’으로 활용한다.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말까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772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이들을 단계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 중인데 이어,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직접 현장을 뛰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긴급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자 광주시는 경로당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 68곳에 에어컨을 설

치해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또한 176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홀로 사는 어르신 4600여 명에게 안부전화와 하고 주 1회 가정을 직접 방문해 혈압체크, 식단확인 등을 통해 건강을 살피고 생활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을 꼼꼼히 살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광주시는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전국 1위, 긴급복지 지원 4년 연속 광역시 1위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가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기워 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제주항공, 광주~제주 노선 신규 취항

내달 28일부터...하루 2회

광주시는 예정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이 오는 3월 광주~제주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3월 28일 하계 스케줄에 맞춰 광주~제주를 하루 2회 운항할 수 있도록 현재 노선허가와 공항시설 확보, MOU 체결, 시민홍보, 취항식 행사 등의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신규 취항하게 되면 광주공항 운항노선은 1일 왕복 15회에서 17회(제주노선 14, 김포노선 3 / 대한항공 5, 아시아나 7, 티웨이 3, 제주항공 2)로 늘고 수송 인원은 월 13만명

에서 15만명으로 늘어나게 돼 광주·전남·전북·충청권 주민의 항공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뿐 아니라 지역공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항공사 신규 취항을 위해 국내외 여러 알뜰항공사(LCC)를 상대로 광주공항 항공수요를 꾸준히 홍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이번 제주항공 신규취항을 유치하는 결실을 거뒀다.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광주공항 수요에 대비한 광주~김해, 광주~인천 노선 등 다양한 노선 저변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청각장애인 치료비 지원 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120% 내

광주시는 수술비 부담이 힘든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 착용으로도 청력회복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청인들과 선천적으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언어발달과 인지능력발달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수술이다.

광주시는 올해 8537명의 청각장애인 중 기준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수술

적격자로 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지원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 기준중위소득 150% 범위 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고 재활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수술비용과 수술 후 매핑, 언어, 청지능발달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3년 동안 매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수술 가능 확인서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분처럼 무럭무럭 크거라” 광주시가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마중물 초록정원’, ‘마중물 북카페’, ‘마중물 시니어 상담’ 등 어르신들과 관련한 특화프로그램들이 주목받고 있다.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시니어 힐링 원에서 과정을 수료한 어르신(19명)이 화분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는 마중물 초록정원 프로그램. <광주시 제공>

사회복지시설 경영 노하우 전수 받으세요

내일 광주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광주복지재단(대표 장현)은 오는 9일 빛고을타운 홍보관에서 컨설팅에 관심있는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2017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컨설팅 사업개요 및 2016년 사업 결과보고와

2017년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16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발표와 2년 연속 컨설팅을 함께 수행하게 된 한국감바센터의 사업 설명이 더해져 재단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복지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7년 재단 컨설팅 사업은 미선과 비전수립,

조직진단과 설계 중 1개 분야에 대해 3개소 대상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과 복지현장 사회복지인 15명 대상 ‘미션과 비전수립 컨설턴트 양성과정’으로 진행된다.

장현 대표이사는 컨설팅 사업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 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설명회 참가는 8일까지 이메일

(gjwf@daum.net) 또는 팩스(062-603-8377)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재단 복지사업팀(062-603-8341)으로 하면 된다.

한편 ‘2017년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은 사업설명회 직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16일간 대상기관 모집 절차 후, 3월 초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사회복지시설 3개소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컨설팅을 지원 받게 되며,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으로 보는 그림책의 세계

이야기꽃도서관 전시회

광산구립 이야기꽃도서관이 예술 영역에 도전하는 그림책 전시회 ‘더 콜렉션’을 진행한다.

전시회는 다양한 색과 강도의 빛으로 그림책을 표현해 작품의 예술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느끼고,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림출판사와 연계해 도서관 1층 갤러리 5.0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는

▲레베카의 작은 극장 ▲불새 ▲불을 꺼봐요 ▲밤을 깨우는 동물 등 7개 그림책을 조명과 야광으로 표현한 작품 20여 점을 소개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그림책이 갖고 있는 예술성과 소장가치에 새롭게 주목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시회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전시회 관람료는 없다. ‘더 콜렉션’에 대한 문의는 이야기꽃도서관(062-960-6810)에서 받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

대지 370평 최저가 681,578,000
건물 97평 감평가 1,217,104,900

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

대지 261평 최저가 1,450,531,000
건물 458평 최고가 2,072,187,000

나주시 보산동 상가 사무실

대지 551평 최저가 302,186,000
건물 181평 최고가 302,186,000

화순 도곡 숙박시설

대지 980평 최저가 992,958,000
건물 1,296평 최고가 3,787,938,000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대지 91평 최저가 425,000,000
건물 340평 최고가 948,794,100

백운동 빌라주택

대지 66평 최저가 174,499,000
건물 146평 최고가 311,605,000

매매 160,000,000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183-68

면적 1,600평
매매 340,000,000
지목 과수원(자연녹지)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매도/매수 전문

010-3070-2147 유 여사